

▣ 업계동정 ▣

(株)光明機電, 중국 합자기업 설립 및 VCB 개발

(株)光明機電(代表: 鄭永秀)은 1955년 설립된 저압에서 특고압까지의 중전기기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로서 '90년대 들어 수출에 총력을 기울이던 중 '98년 9월에 흑룡강성 할빈전업국산하 할빈시화통전력설비개발공사와 합자기업 설립계약을 체결하였다.

합자기업은 초기 (주)광명기전의 주상부하 개폐기를 반제품 또는 부분품으로 수입하여 조립후, 중국 및 동남아 시장에 수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99년에는 \$1,000,000 향후 3~4년내 \$3,000,000로 성장하고 생산 품목도 차단기 및 기타 전기자재로 확대하여, 외적성장과 내실을 계획하고 있다.

(주)광명기전의 중국진출 결정은 유럽 및 미국의 선진기업에 비하여 시기적으로 늦지만 중국 동북지역의 한국과 가까워 지역적 특성 및 깊은 유대감, 증거가를 선호하는 구매성향, 동북지역이 중국 9.5개혁의 SOC 중점 개발지역이라는 장점과 도전적인 (주)광명기전의 시장접근 노력에 근거한다고 한다.

현재, 국내의 중전기업체로서 중국에 진출하여 괄목한 성과를 거둔 업체는 없는 현실에서 (주)광명기전은 5년이내, 광명은 반드시

중국진출 성공한 전문 중전기업체로서 향후, 한중교역의 교량이 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고 있다.

한편, 동사는 국내 최초로 Medium voltage class의 24kV 31.5kA 1250/2000A의 진공차단기를 '98년 10월초에 국제전기규격(IEC56)을 적용하여 국내 개발시험에 합격하였다.

세계적 우수중전 Maker중 1~2 회사만이 개발한 고차단용량 38kV급 31.5kA/40kA 진공차단기를 동사에서는 연구개발비 약 5억 원을 2년에 걸쳐 투입하여 최근 세계적인 중전기 인증 시험기관인 네덜란드 KEMA에서 미국규격(ANSI C 37)과 국제 전기규격(IEC 56)을 적용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함으로써 더 한층 경쟁력과 기술력의 우위를 확보하였다.

지금까지 고차단용량을 국산화 하지 못해 중요한 수변전 설비에는 고가의 외국 GCB(가스차단기)를 수입하여 외화의 낭비와 중전기 분야의 기술 낙후국을 면치 못했으나 이제는 이 부문에 최고의 제조회사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어 국내시장의 한국전기연구소 시험설비 및 철도청 전철 변전소에 사용되는 차단기

에 납품예정이며 미국 우수중전 Maker에 국, 대만 등의 아시아 국가에 중전기기를 '98 '98년 10월중 샘플을 보내는 등 연간 약 년도 기준 약 300만불 정도의 수출을 하고 200만불 정도의 수출이 예상되며, 미국, 중 있는 중견 업체이다.

LG産電(株), 저압기기 생산 국내 첫 1억대 돌파

LG産電(株)(代表:李鍾秀)가 국내업계에 서 처음으로 저압기기 생산 1억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동사는 지난 '74년 저압기기 생산을 시작, '86년 1천만대 생산을 돌파했으며 다시 12년 만에 1억대를 기록했다.

저압기기 제품의 평균 길이를 15cm로 계산할 경우 1억대를 늘어 놓으면 총 1만5천 km에 달하게 된다. 이는 서울~부산간을 17번 왕복할 수 있는 길이이다.

저압기기는 교류 6백V 이하 전기회로에 사용되는 전기기기로 크게 차단기류와 개폐기류로 나누어진다.

LG산전은 '80년대 초부터 자체 기술로 제품 개발을 시작, 차단기 부문에서는 2백 25AF(암페어 프레임) 이하 소용량 부터 4백 ~8백AF 중용량 제품까지 개발을 끝냈고, 1천AF 이상 대용량 제품도 곧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접촉기도 80AF 이하 중·소용량급 부터 1백~8백AF 대용량급까지 시리즈 개발을 끝내 저압기기 전기종 생산업체로 발돋움했다.

동사는 또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차단기와 접촉기 전제품에 대해 독일의 TUV로부터 CE마크를 획득했다.

또 접촉기 중·소용량은 미국 UL규격을 획득하는 등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LG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폐 수명과 횡수를 기존 제품에 비해 2.5배 늘린 접촉기와 부속장치를 모듈화한 소용량 차단기를 올해 말 국내외와 해외에 시판키로 했다.

해외시장에서는 기존 동남아, 남미시장에서 벗어나 유럽 미주 등지로 적극 진출, 매출액 중 수출비중을 현재 30%에서 50%로 확대할 예정이다.

大韓電線(株), 국내 최초 동롯드 2백만톤 생산 돌파

大韓電線(株)(代表: 兪彩濬)가 최근 전선 주요 소재로 쓰이는 동롯드를 국내 최대 생산량인 2백만톤 규모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동사의 이같은 실적은 지난 '80년 동롯드 생산공장 준공과 함께 '93년 1백만톤 달성 이후 5년만에 이룬 것으로 동급 규모의 설비로는 획기적이다.

원자재의 장입 주조 압연 코일라 포장에 이르기까지 일괄생산 체제를 도입한 대한전선 동롯드 공장은 현재 시간당 40M/T, 연간 240,000M/T 규모로 국내 최대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향후 초극세선용 동롯드 양산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대한전선 동롯드 공장은 컴퓨터 중앙 집중장치를 통한 공정자료 분석관리, 전라인 자동화 CAST BAR의 자동컨트롤러 등 최첨단 설비로 균일한 품질 유지와 콤팩트하고 다양한 권취방식을 채택 수요자가 현장상황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이와함께 19년간의 노 하우 축적과 국제품 질규격 이상의 품질수준을 유지·관리 불순물 함량이 극히 적고 표면광택이 우수한 동롯드를 생산, 엄격한 규격제한을 두고 있는 일본을 비롯 동남아시아에서도 큰 호평을 받고 있다.

(株)瑞日機電, 국내 최초로 페루에 ATS 83천불 수출 성공

(株)瑞日機電(代表: 李永鎬)가 국내 업체로는 최초로 페루에 ATS(비상전원절체개폐기), ACB(기중차단기)ATS-CONTROLLER 및 SYNCRONIZER에 대하여 83천불의 계약에 성공했다.

이번 서일기전의 수출은 그동안 전무한 페루시장에서의 우리 중전기제품의 우수성을 입

증하는 계기가 되어 수출 시장의 다변화를 이루는데 성공 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번 결과는 경기도에서 실시한 수출기업화 사업에 선정되어 경기도와 KOTRA가 공동 주관한 남미시장 개척단에 참가하여 베네주엘라, 콜롬비아, 페루 등을 방문하여 제품 홍보에 남다른 열성을 보인 결과 페루의 한 바이어

로 부터 동사의 제품이 다른 경쟁국 제품에 비교해서 가격, 품질등에서 우수성을 인정 받아 이번 페루 수출에 성공했다.

동사는 '95년부터 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시아 시장에 샘플을 수출하는 계기로 현재까지 30만불의 수출을 했으며, '96년부터는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시장조사와 작년에는 대만, 베트남 등 각종 전시회를 참가하는 등 해외 수출시장 개척에 주력해 왔다.

이번의 페루시장 진출은 전 임직원이 기술 개발과 해외시장 개척에 힘쓴 결과로 ▲고객의 요구에 최대한 만족시키는 품질개선, ▲고객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사후관리, ▲고객의 필요를 최대한 충족시키는 원가절감, ▲고객의 요구를 앞서가는 기술개발 등과 “품질 실명제”를 도입하여 고객에 한층 가까이 다가선 결과이다.

三和技研(株), 국제발명전시회 금상 수상

三和技研(株)(代表: 金仁錫)는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국제발명전시회에 「EOCR-3DM」을 출품해 영예의 금상을 수상, 우수한 기술력을 전세계에 과시했다.

삼화기연의 EOCR-3DM은 모터에 과전류나 과부하가 흐를시 이를 감지하여 사전에 전류를 차단시킴으로써 모터의 손상을 방지하는 보호계전기이다.

삼화기연이 4년동안 5억원의 연구비를 투자해 개발한 이 제품은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내장하고 ASIC CHIP을 적용, 한가지 모델로 0.1A에서 600A까지 보호가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또 동작시간 및 경보설정 범위가 넓으며 경보신호를 기동시간, 수동복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출력할 수 있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동사는 연간 5천만 달러의 매출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으며 현지 UL Safety인증 취득을 추진중이다.

한편 독일 국제발명회에는 전세계 25개국에서 선보인 500개의 발명품이 출품됐으며 25개 부문에 대해 각각 금상이 수여됐다.

(株)有裕, 세라믹 칩 배리스터 개발

(株)有裕(代表: 鄭淳煥)는 최근 이동통신 단말기와 노트북PC의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을 서지 및 정전기로 부터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세라믹 칩 배리스터를 개발,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발된 제품은 표면실장형(SMD) 다층구조의 칩 배리스터로 디스크 배리스터에 비해 연속되는 다중 스파크에 높은 저항성과 빠른 응답속도를 보이는 한편 온도특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제품은 또 국내 시장에 수입되고 있는 세라믹 칩 배리스터에 비해 성능은 우수한 반

면 가격은 절반 수준에 불과해 앞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월 1천만개의 세라믹 칩 배리스터를 양산할 수 있는 생산설비를 도입한 유유는 현재 월 4백만개의 제품을 생산, 국내외 시장에 공급하고 있다.

유유는 최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자제품의 오작동이나 기능장애를 유발하는 서지 및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어 앞으로 이번에 개발된 제품의 수요가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KD파워, 「98동경 한국부품 산업전」 전력제어기 호평

전력벤처전문회사인 (주)KD파워(S/S프로젝트본부장 박기주)가 일본 동경에서 열린 「98동경 한국부품전」에서 지능형 전력제어기인 「KEN DIGITAL UNIT」와 「S/S패키지」를 출품해 일본 전력회사와 현지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동경 선샤인 문화회관 3층에서 열린 이번 전시회에서 KD파워가 출품한 「KEN」과

지능형 변전설비인 「S/S패키지」가 후지전기, 미쓰비시, 도시바, 히타치 등 일본전력계 관계자들을 비롯 현지 참관인들로 부터 지능형 디지털 시스템탑재의 웹 기반 전력관리 및 원방제어기기로서 제품성능의 우수성을 인정받아 많은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밝혔다.

특히 KD파워는 이번 전시회에서 「KEN」는 일본에도 유사한 제품이 있지만 일본 제품

보다 성능이 월등해 일본 전력회사의 한 사장이 직접 방문해 제품을 평가한 후, 담당영업 직원을 다시 보내 상세하게 제품조사와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본 제품과 가격 비교까지 제시하는 등 비상한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 박기주 KD파워 본부장은 「지능형전력제어기인 KEN은 이번 일본 전시회를 통해 제품의 우수성이 확인돼 앞으로 일본 및 중국시장을 비롯 세계 각국으로 해외수출에 적극 나서겠다」 고 밝혔다.

— 정 정 안 내 —

국제산업전자(주)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음을 안내합니다.

	정 정 내 용	비 고
대 표 자	朴 興 德	폐 쇄
본 사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167번지	
서울사무소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24 삼우빌딩	
전화번호	(0343)421-8812 / 6 Fax : (0343)421-8815	